

황순원 소설의 문체번역 가능성 - 「소나기」를 중심으로

한 미 애
(동국대, 서울)

1. 들어가는 말

문체(style)는 작가가 글을 구성하는 특색으로, 작가마다 다양하고 독특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작가는 각 소설에서 문장의 길이, 리듬, 은유, 어휘 등의 특질을 혼합함으로써 소설의 문체를 형성한다. 어떤 작가의 문체는 “비범하고 효과적이어서 심지어 처음 대할 때에도 그 문체를 알아차릴 수 있으며, 사실상 독자들에게 문체가 중요한 매력이 될 수 있다”(Stanton 30).

문체는 작품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번역문에서는 가독성을 이유로 원저자의 문체가 잘 고려되지 않는다. 도착어 독자의 수용성만을 중시하여 원저자의 문학적 특성이나 미학적 장치가 번역문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주관한 한국문학도서 영역본 평가사업¹⁾을 맡

1) 2007년-2008년 시행된 ‘영어권 기 출간도서 번역평가 사업’.

있던 송승철은 “외국인들이 읽기 편하게 옮기는 데에만 치중해 원작의 미묘한 감정의 결 같은 것을 살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연합뉴스 2008년 10월 9일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오키²⁾도 “한국문학의 위상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작가의 문체와 한국 특유의 풍습을 잘 옮겨내는 번역자가 드물기 때문”(CNB News 2008년 10월 9일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상적인 번역은 내용과 형식을 모두 번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원문의 형태는 출발어 언어 관습에 의해 규정되지만 도착어 언어 규범과는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형식을 번역하게 되면 텍스트의 내용이나 의미가 불가피하게 모호하게 된다고 한다. 문체 수용성의 기준이 언어마다 다르다는 이유로 문체를 변경하게 되면, 독자는 원문의 세계에 다가갈 수 없게 된다. ‘문체’는 곧 ‘의미’이기 때문이다 (Hatim & Mason 9-10).

내용뿐 아니라 형식을 잘 살려 번역하는 것이 황순원 소설에서는 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의 “소설 미학 자체는 문체의 성과”(권영민 215)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황순원의 대표작인 「소나기」에서 두드러진 문체적 특징과 효과가 무엇인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문체적 특징이 「소나기」의 영역본 세 종류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겠다. 이를 통해 황순원 문체의 번역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소나기」의 서정성과 문체

「소나기」에 나타난 문체적 특성은 한 편의 서정시를 읽는 듯한 서정성³⁾에 있다. 이 서정성을 형성하는 요소는 간결체, ‘일문일단락’, ‘시제의 혼용’, 도치법, 생략법, 인용법, 반복법, 색채어 및 토속어 사용 등이다. 이러한 크고 작은 장치들이 하나의 유기체로 구성되어 서정적 문체가 형성된다.

황순원의 작품에서 기법이나 형식은 그 내용과 하나를 이루고 있다. 즉 “기

2) 무사시대학교 와타나베 나오키 교수. 한국문학번역원이 주최하는 제2회 세계번역가대회에서 언급.

법은 단순히 작품의 내용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박혜경 180) 그 자체로써 의미를 전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황순원이 즐겨 다루는 미학적 특성은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형식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써 작품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야기를 전하는 각각의 방식이 서로 융합되어 다른 작가와 구별되는 황순원만의 문체를 이루고 있다.

황순원의 소설에서 일상적 체험이 예술적 현실로 고양되고 있는 것은 그 소재의 속성이나 주제의식의 지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창조적 변화는 그의 언어의 형식, 서술의 방법에 의해 방향이 결정된다. 그에게 있어서 언어란 이야기의 내용을 전달하는 서술적 수단만이 아니라, 그 문학적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작가 황순원만이 지니고 있는 언어, 작가 황순원만이 표현할 수 있는 문장과 그 서술의 힘 우리는 황순원의 소설을 보면서 그의 이야기의 흥미보다 문체의 감응력에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권영민 202)

주제와 잘 어우러진 문체적 효과는 특히 「소나기」에서 시적인 아름다움으로 발휘된다. 작가는 예술적 기법으로 소년, 소녀의 섬세한 감정 변화를 표현하고, 천진난만한 사랑의 싹틈을 생동감 있게 묘사한다. 언어 형식과 서술을 하나 하나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독자가 어린 소년, 소녀가 된다. 황순원의 다채로운 표현 방식과 문학적 장치가 「소나기」로 완성되는 셈이다. 따라서 표현 방식과 장치들을 일부만 번역본에 반영하게 되면, 그만큼 문학적 가치나 효과는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나기」의 문체적 특징 중 번역본에 크게 두드러지는 양상 네 가지, 즉 ‘일문일단락, 시체의 혼용, 어구의 도치, 어구의 반복’에 초점을 맞추어 이 특징이 영역본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분석하겠다. 세 종류의 텍스트를 비교하면서 황순원의 문체를 번역할 수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TT1(번역문1)은 Edward O. Poitras가 “Cloudburst”라는 작품으로 영역하였고, *The Stars and Other Korean Short Stories*(1980년)에 실려 있다. TT2는 Martin J. Holman이 영역하였으며, *Shadows of a Sound*(1990)에 실린 “Cloudburst”이다. TT3은 안선재(Brother Anthony)가 “Shower”라는 제목으로 영역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소개했지만 아직 출판되지는 않았다.

3. 「소나기」 번역본 분석

3.1. 일문일단락

‘일문일단락(one-sentence paragraph)’이란 문장 하나가 한 단락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행이 자주 바뀌게 되면 시와 같은 경쾌한 느낌과 리듬감이 생긴다. 또한 일문일단락은 “장면과 사건에 대해 강조적인 성과를 부여해 줄 뿐 아니라, 수채화처럼 그 인상을 선명히 해주고”, 시간의 흐름과 “장면전환”(이용남 442) 효과를 준다.

(1)

(ST) ① 다음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206쪽)

② 토요일이었다.

개울가에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 가에 앉아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209쪽)

③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소년은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보았다. 갈밭머리에서 바라보는 서당 골 마을은 쪽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219쪽)

(TT1) ① The next day he went to the stream a little later. This time the girl was sitting in the middle of the stepping-stones washing off her face and hands. She had pushed up the sleeves of her pink sweater, and her arms and neck looked especially fair.

② It was a Saturday. He had not seen the girl for several days, but when he arrived at the stream, she was sitting on the opposite bank splashing in the water.

③ Day by day, the water in the stream flowed in its course, and the autumn deepened. The boy went to the fork in the road and looked down the lower way. Beyond the end of the reed field the village in the schoolhouse valley appeared unusually close under the indigo sky.

(TT2) ① The next day he came out to the stream a little later.

Today the girl was squatting on one of the stepping-stones, washing her face. The sleeves of her pink sweater were rolled up. Her arms and the nape of her neck were pure white.

② It was a Saturday. When he reached the stream, he found the girl, whom he hadn't seen for several days, on the far side playing in the water.

③ As the days went by, the water in the stream turned colder.

The boy took the lower path at the fork in the road. The village in the valley with the school appeared close as he gazed down on it beneath the indigo sky.

(TT3) ① The next day, he arrived at the stream a little later. This time he found her washing her face, sitting there in the middle of the stepping-stones. In contrast to her pink jumper with its sleeves rolled up, the nape of her neck was very white.

② Saturday came.

When he reached the edge of the stream, the girl, whom he had not seen for several days, was sitting beside the stream playing with the water.

③ The water in the stream matured daily.

The boy went up to the parting of the ways and turned downhill. The village round the old school looked very near beneath the clear blue sky.

황순원의 서정성을 살려주는 일문일단락이라는 문체의 장치는 TT1에서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단락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연결함으로써 ‘장면전환’ 효과가 사라졌다. TT2의 ②와 TT3의 ①에서도 이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TT2와 TT3에서는 작가가 동일한 상황에서 한 선택이 동일하게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의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 첫 문장에서 사용된 이 기법은, 강조의 효과를 부여하는 장치로 텍스트의 시각적 구성과 관련이 있다. “텍스트의 시각적 구성은 지각 책략을 조작하여 인지도(cognitive map)를 형성함으로써 정보를 처리하고 수용하는 방식에 영향”(Simpson 33)을 미친다. 일문일단락으로 처리되지 않은 TT1/TT2의 ②와 일

문일단락으로 처리된 TT3의 ②를 비교해보면 시각적인 느낌이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행을 자주 바꿈으로써 시각적으로 인상을 주는 기법은 특히 운문에서 자주 사용된다. 「소나기」를 읽으면서 아름다운 한편의 시를 읽는 듯한 인상을 받는 데는 단락처리가 한 몫 한다고 볼 수 있다. 행을 자주 바꿈으로써 시각적으로 여백을 남기는 것이다. 독자들은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한 단락이 끝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 해당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여유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단락을 재구성하게 되면, 여백의 미가 결여되어, “텍스트가 투사하는 메시지는 재미없고 상상력이 결여”(Simpson 53) 된다.

3.2 시제의 혼용

황순원은 이야기를 과거 시제로 서술하면서도 현재 시제를 즐겨 사용한다. 시제의 변화는 작가의 의도적인 문학적 장치로서 주요한 문체적 특징이다.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를 과거 시제로 객관적으로 묘사하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문맥에 즉흥감, 생생함, 생동감, 리듬감이라는 극적인 인상을 주게 된다.

현실법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마치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수사법을 말한다. 이 수사법에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야 할 곳에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현실법은 무엇보다도 현장감과 생동성을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역사적 사건을 박진감 있게 기술할 때, 기행문에서 현장성을 살릴 때, 또는 소설에서 장면을 설정할 때 자주 쓴다. (김육동 355)

과거 시제로 된 문장은 이야기의 순차적 진행에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의 진술을 담당한다. 이 서술적 문장을 바탕으로 작품 내용의 골격이 형성된다. 현재시제로 된 문장은 이야기의 전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이야기의 진전을 가로막고 특정의 정황에 독자의 관심을 모은다. 이 관심의 집중화는 장면의 확대, 상황의 암시, 긴장의 고조 등 정서적 효과가 난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이야기의 줄거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작가

는 사건의 연결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의 틀에서 벗어나 소설 속에서 정서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이한 서술방식과 표현구조는 이효석의 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효석은 사실성의 추구에서 서정성으로의 복귀라는 변화의 과정을 갖는 반면에, 황순원은 처음부터 정서적 가치를 중시한다. (권영민 205-206)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나기」에 두드러진 특성인 시제 혼용은 TT1과 TT2에서는 모두 과거 시제로 처리되었다. 원저자의 특징적 기법이 사라짐으로써, 생생한 문체의 결이 살아나지 않았다.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의 문체적 효과인 속도의 리듬감이 TT1과 TT2에서는 사라졌다. TT3에서는 다른 번역본과는 달리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혼용이 되어 장면이 묘사되었다. 과거형에서는 시간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형에서는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효과를 주어 전체적으로 보면 강약의 리듬을 타고 있다. 과거 시제에서는 행동이 빨리 진행되고, 현재 시제에서는 행동이 천천히 움직인다. 이렇듯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게 되면, 문맥에 리듬감이 부여 된다.

(2)

(ST)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 아간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텃논의 참새를 봐야 할 걸 하는 생각 이 든다.

“아이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 댄다. 허수아비가 대고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패었다.

저만치 허수아비가 또 서 있다. 소녀가 그리로 달려간다. 그 뒤를 소년도 달렸다 .

소녀의 걸을 스쳐 그냥 달린다. 매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 와 부딪친다.

(TT1) They came to a raised path between the rice paddies. The boy shook the straw ropes holding it up. Some sparrows flew away. He thought, “Oh, I really ought to go home early today and keep the sparrows out of the field next to the house.”

“Oh, what fun!” The girl took hold of the lines on the scarecrow and shook them. The scarecrow kept swaying and dancing. The dimples were

softly outlined in the girl's left cheek.

A little farther on stood another scarecrow. The girl ran over to it. The boy ran along behind.

He brushed past the girl and just kept running. The grasshoppers flying against him made his face sting.

(TT2) A scarecrow stood in one of fields. The boy shook one of the straw ropes supporting it. Several sparrows flew away. It occurred to him that he should go home early to keep the sparrows out of the rice paddy near his house.

“Oh, that's funny.”

The girl grabbed the rope and shook it. The scarecrow swaggered and danced. A dimple appeared in the girl's left cheek.

There was another scarecrow in the next field. The girl ran to it. The boy followed.

The boy brushed past the girl and ran on. The grasshoppers stuck his face as they flew into it.

(TT3) A scarecrow was standing there. The boy shook its straw rope. A few sparrows go flying off. The thought comes to him that he was supposed to go home early today to scare the sparrows from their main paddy field.

‘This is fun!’

The girl is holding the scarecrow's rope and is tugging at it. The scarecrow sways, seems to be dancing. A light dimple appeared on the girl's left cheek.

A bit further away there is another scarecrow. The girl goes running toward it. The boy is running behind her

He just runs on close beside the girl. Grasshoppers strike their faces and leave them stinging.

시제의 혼용을 전혀 번역하지 않은 TT1과 TT2와는 달리 TT3에서는 대체로 잘 반영이 되어 동일한 문체효과가 나도록 했다. 다만 부분적으로 시제가 ST와 다르게 처리된 부분이 있다. (2)의 “소년이 달렸다”에서 행위의 시제는 과거이지만 TT3에서는 “The boy is running”으로 되어 있다. 이는 소년의 행동의 시

제를 뒷문장인 “He just runs on close beside the girl.”과 일관되게 현재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예문(3)의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며”에서 손을 올리는 시제와 뉘우치는 시제는 동일한 현재이므로 “As he was pulling” 대신 “As he is pulling”로 바꾸어야 한다.

(3)

(ST) 소녀가 조용히 일어나 비탈진 곳으로 간다. 꽃송이가 달린 줄기를 잡고 끊기 시작한다.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만다. 칠푼얼을 그려주었다. 소년이 놀라 달려갔다. 소녀가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며, 소년은 제가 꺾어다 줄 것을 잘 못했다고 뉘우친다.

(TT3) The girl stands up and heads for the slope. She seizes a creeper where there are many flowers blooming and starts to tug at it. It does not snap easily. Making more of an effort, she ends up slipping. She grabbed hold of an arrowroot vine. The boy, alarmed, came running over. The girl held out a hand. As he was pulling her up by the hand, the boy apologizes that he would have picked it for her.

TT3에서는 TT1과 TT2와는 달리 과거 사건을 서술하면서 현재 시제를 사용했는데, 이러한 기법은 영어권에서는 ‘역사적 현재’(historical present) 또는 ‘극적인 현재’(dramatic present)라 한다. 우리 용어로는 ‘현실법’에 해당하는 이 기법은 과거 사건을 묘사하는 내러티브 문학에서 자주 사용된다. 이 문학 장치를 사용하여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독자가 전개되는 이야기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효과를 준다.

the present tense is used in speaking of the past. This is the case in the “dramatic present” (generally called the “historical present”) which is pretty frequent in connected narrative; the speaker, as it were, forgets all about time and imagines, or recalls, what he is recounting, as vividly as if it were now present before his eyes. Very often this present tense alternates with the preterite. (Jespersen 12)

제스퍼슨(Jesperson)은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IV에서 역사적 현재(극적인 현재)의 개념과 문체적 효과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e took me by the wrist and held me hard;
 Then goes he to the length of all his arm;
 And, with his other hand thus o'er his brow,
 He falls to such perusal of my face
 As he would draw it. Long stay'd he so;
 At last, a little shaking of mine arm
 And thrice his head thus waving up and down,
 He raised a sigh so piteous and profound
 As it did seem to shatter all his bulk
 And end his being: that done, he lets me go:
 And, with his head over his shoulder turn'd,
 He seem'd to find his way without his eyes; (헨릿 2막 1장: 밑줄 표시는 필자 강조)

The messenger said, "There she is, sir": at which he comes directly upon me, kisses me, took me in his arms, and embraced me (D. Defoe: 밑줄 표시는 필자 강조)

‘역사적 현재’는 위의 예문뿐 아니라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의 소설 『데이비드 카퍼필드(David Copperfield)』의 9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과거 이야기를 현재 시제로 서술하는 이러한 방법은 우리 문학에 국한된 기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역사적 현재(극적인 현재)’는 영어권뿐 아니라 “다른 언어권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하영진 113) 장치로 일상 언어가 문학적 언어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TT3처럼 원저자의 문체적 특성이 번역문에도 반영되어야 원문의 문체적 효과가 날 수 있다.

3.3 어구의 도치

도치법은 어구를 앞뒤로 도치하여 문장에 흥미로운 인상과 강조라는 미학

적 효과를 주는 장치이다.

(4)

(ST) ①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206쪽)

② 갑자기 물을 움켜 낸다. 고기새끼라도 지나가는 듯.(207쪽)

(TT1) ① The girl was putting her hand in the stream and splashing the water. Just as if this stream were something you don't see in Seoul.

② Suddenly she thrust her hand into the water, just as though trying to catch a little fish passing.

(TT2) ① She was playing with her hand in the water, as though she had never seen such a clear stream in Seoul.

② Suddenly she scooped up some water, as though trying to catch a passing minnow.

(TT3) ① She had her hands in the water and was splashing it about. Probably she had never seen a stream like that in Seoul.

② She makes a sudden grab at the water. Perhaps some baby fish were swimming by.

TT1 ①에서는 앞 뒤 문장을 ST처럼 순서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뒤에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되었다. TT1 ②에서는 ST와는 달리 완전한 한 문장으로 처리되었다. TT2에서는 모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묶어 일반적인 문장으로 처리되어, 원저자의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장치와는 달라졌다. TT3의 ①,②에서는 ST처럼 두 문장의 어순을 바꾸고 두 문장으로 처리했지만, 뒤에 놓인 문장은 “probably”, “perhaps”, “It's as if”를 사용하여 완전해졌다.

문학작품에서는 완전하지 않은 문장도 문체적으로 효과를 낸다. 벤자민(Benjamin 135)에 따르면, 강조의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된 불완전한 문장을 ‘stylistic fragment’라 한다. 이러한 기법을 연속적으로 잘못 사용하면 어색할 수 있고 학술적인 글쓰기에서는 문법오류로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소설이라는 장르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를 처리하는데 유용하다. 어구를 도치하여 생긴

불완전한 문장은 일탈 현상이라는 특징을 이룰 수 있으며, 능숙한 작가들에게는 허용될 수 있는 장치이다. 종속절에 주어와 동사가 있기 때문에 문장처럼 보이며, 문맥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예문(4) ②에서 도치법으로 사용된 “갑자기 물을 움켜 낸다. 고기새끼라도 지나가는 듯”이라는 표현은 “고기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갑자기 물을 움켜 낸다”라는 규범적인 표현에서 일탈된 문장이다. 언어에서 일탈 현상이라는 “패턴이 텍스트에서 확립되면, 패턴 나름의 규범(norm)을 설정하기 시작한다. 일단 이러한 ‘기이한 규범’이 확립되면, 문체론적으로 이용할 길이 열린다”(Simpson 54). 즉 언어적 규범에서 일탈이 문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체가 선택의 개념이듯이, 일탈도 문체적 선택이다. “언어 규범의 체계적 위반으로 언어를 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언어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언어가 ‘강조’ 된다”(Traugott 31에서 재인용). 즉 일탈현상이 시적인 기능을 하는 셈이다. 「소나기」가 서정시와 같은 인상을 주는 데에는 어구의 도치도 한 몫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문(4)의 TT1 ①처럼 TT1/TT2 ②에서도 “as though” 문장을 하나의 불완전한 독립된 문장으로 만들어도 이상할 바 없다. 오히려 일반 규범에서의 일탈로 문맥에 시적인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3.4 어구의 반복

반복법은 같거나 비슷한 어구를 되풀이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다. 이러한 반복법을 사용하면 문장에 리듬감이 생기고, 독자의 흥미를 끌게 된다.

(5)

(ST1) ① 어디선가, 바보,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다.(208쪽)

② 소녀의 눈이 금세, 바보, 바보, 할 것만 같았다.(210쪽)

③ 소녀더러 병이 좀 낫거들랑 이사 가기 전에 한번 개울가로 나와 달라는 말을 못 해둔 것이었다. 바보 같은 것, 바보 같은 것.(218쪽)

(TT1) ① It seemed as though he kept hearing the sound of “Dummy!”

Dummy!” following him from behind.

② When she said that, the girl’s eyes seemed to be saying, “Dummy! Dummy”

③ But then, oh no, he had completely forgotten to a아 her to come down to the bank of the stream once more if she got better they moved away. What a dummy he was. What a dummy.

(TT2) ① From somewhere a voice followed him. “Silly fool! Silly fool!”

② The girl’s eyes seemed to say, “Silly fool! Silly fool!”

③ Then he suddenly realized he had not asked the girl to come out to the stream one more time if she got well before she moved. Silly fool. Silly fool.

(TT3) ① He had the impression of a voice following him, repeatedly calling out, ‘Silly boy, silly boy.’

② The girl’s eyes seemed to be saying, ‘Silly boy! Silly boy!’

③ He had failed to tell the girl that once she was better, before they moved away, he wanted her to come out one last time to the streamside. You fool! You fool!

위의 예문(5)에서 볼 수 있는 원저자의 어구의 반복은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세 번역본에서 모두 잘 반영되었다. 하지만 아래의 예문(6)에서는 번역본마다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TT1과 TT3에서는 “다음날도, 다음날도” 어구가 번역되지 않아, 소년의 그리움이 잘 표현되지 않았다. TT2에서는 “the next day”를 반복함으로써, 소녀를 보고 싶어 하는 소년의 그리움이 표현되었다. 하지만 TT2에서는 “다음날도”가 앞 문장과 이어져서 일탈된 문장으로 처리되지 않아, 강조의 효과는 사라졌다. 또한 “뵈지 않았다”라는 동사의 반복은 고려되지 않아, 리듬감도 사라졌다.

(6)

(ST) 그 다음날은 소녀의 모양이 뵈지 않았다. 다음날도, 다음날도. 매일 같이 개울가로 달려와봐도 뵈지 않았다.(216쪽)

(TT1) After that day the girl was nowhere to be seen. Every day the boy would run to the place by the side of the stream but could never find her.

(TT2) The boy didn't see the girl the next day, or the next, or the next. He ran to the stream every day, but she wasn't there.

(TT3) After that there was no sign of the girl. Every day he ran to the stream to look, but she was not to be seen.

4. 맺는 말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에서는 일문일단락, 시제의 혼용, 어구의 도치, 어구의 반복이라는 장치가 주제와 융화되어 서정성이 부여되었다. 일문일단락으로 장면전환 효과와 문장에 리듬감과 강조 효과를 주고, 과거 시제로 서술하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생동감과 리듬감이라는 인상을 준다. 또한 어구의 도치와 어구의 반복을 통해 흥미로운 인상과 강조라는 문체적 효과를 부여한다.

세 종류의 번역본에서 문체적 특징을 비교해 본 결과, 반복법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사법이라 전체적으로 가장 잘 반영이 되었다. 일문일단락(one-sentence paragraph)은 번역문에서 그대로 지켜지는 경우도 있었고,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원저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한 선택이 번역본에서는 동일하게 선택되지 않은 셈이다. 어구의 도치로 생겨난 일탈현상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시제의 혼용은 번역문에 따라 대조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TT1과 TT2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반면, TT3에서는 ‘역사적 현재(극적인 현재)’ 기법을 시도하고 있다.

번역문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시제의 혼용과 일탈현상이라는 장치는 우리나라의 소설에서만 사용되는 문화 특정 기법이 아니라 영어권에서도 사용되는 미학적 장치이다. 시제의 혼용은 ‘역사적 현재(historical present)’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일탈현상은 ‘stylistic fragment’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장치는 사용 빈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수용성이나 가독성을 떨어뜨릴 만큼 난해한 기법이

아니다.

어떤 문학적 기법은 우리말과 영어의 문체나 구조의 차이로 인해 번역문에서 원문과 동일하게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세 종류의 번역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한 번역본에서 지켜지지 않은 문체적 요소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지켜졌다. 즉 네 가지의 문체적 요소가 모두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한 번역본에서 살릴 수 있는 문체라면 충분히 다른 번역본에서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원저자가 문체적 효과를 고려하여 미학적 장치를 사용하였다면 번역본에서도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황순원의 특징적인 문체를 충분히 살려 주어야 황순원의 작품으로써 가치가 있다 하겠다.

문체는 사회적인 전체적 개념이 아니라 작가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문체를 번역하지 않으면, 이러한 특성이 사라지므로 번역은 ‘불충실한 개성 없는 미녀’가 될 수 있다. 「소나기」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아닌 황순원의 작품이 되려면, 이야기의 내용뿐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 즉 문체적 특성도 최대한 반영해야 되겠다.

참고문헌

- 권영민 (2006) 『한국 현대소설의 이해』, 경기도: 태학사.
- 김상태 (1982) 『문체의 이론과 해석』, 새문사: 서울.
- 김옥동 (2002)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 박혜경 (2001) 『황순원 문학의 설화성과 근대성』, 서울: 소명출판.
- 연합뉴스 (2008년 10월 9일자) 「한국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다시 후일 기약」.
- 이용남 (1996) 「황순원 소설의 문체론적 연구: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16: 423-43.
- 이형진 옮김 (2009) 『문학번역의 세계: 외국 문학의 영어번역』, 서울: 한국문화사 (Landers, Clifford E, (2001) *Literary Translation: A Practical Guide*, Buffalo: Multilingual Matters).
- 정동환 (2002)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의미 분석; 황순원의 ‘소나기’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10: 221-46.

- 하영진 (1976) 「The Historical Present in English」, 『영어영문학』 57: 113-22.
CNB News (2008년 10월 9일자) 「한국문학 해외소개 번역가부터 키워야」.
Benjamin, Amy (2006) *Writing put to the test: teaching for the high stakes essay*, New York: Eye on Education. Inc.
Hatim, Basil & Mason, Ia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Longman.
Jespersen, Otto (1975)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IV*, London: Geroge Allen and Unwin.
Simpson, Paul (1997) *Language through Literature*, London & New York: Routledge.
Stanton, Robert (1965) *An Introduction to Fic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Traugott, Elizabeth Closs (1980) *Linguistic for Students of Literatur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분석대상 텍스트>

- 박혜경 엮음 (2000) 「소나기」, 『황순원 소설선』, 서울: 문학과 지성사.
Poitras, Edward O.(ed. & trans) (1980) “Cloudburst”, *The Stars and Other Korean Short Stories*. Hong Kong: Heinemann Asia.
Holman, J. Martin (ed.& trans) (1990) “Cloudburst”, *Shadows of a Sound*. San Francisco: Mercury House.
An Sonjae (trans), “Shower”, the Home Page of Brother Anthony of Taizé An Sonjae, <http://hompi.sogang.ac.kr/anthony/>

[Abstract]

**Translatability of Style of Hwang Soon-won's Novels:
— Focusing on “Shower”**

Han, Mi-ae

(Dongguk University, Seo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ranslatability of the style of “Shower”. For this, the source text is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ree versions of target texts. The characteristics of style in “Shower” are the one-sentence paragraph, the present-past tense combination, a sentence fragment, and repetition. Paragraphs consisting of one sentence creates transition effect and the vivid image of the story. The present tense used in the narration of events set in the past provides sentences with vividness and promptness. Sentence fragment and repetition convey the stylistic effects of interest and emphasis.

Among the author's artistic devices, sentence fragments are not mostly reflected in target texts and the tense combination is never reflected in TT1 and TT2 while done in TT3 for the most part. These two devices are not culture-specific and are commonly used both in Korean and in American literature. The tense combination is seen as historical present (dramatic present), and a fragment sentence is a incomplete sentence as a stylistic fragment and a kind of deviance. Therefore, the four artistic techniqu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target text. Style is not a social concept, but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an author. When the style of the source text is not translated, a translated text can be ‘a beauty without personality’.

▶ Key Words: style, translatability, literary translation, historical present, deviance

한 미 애

동국대학교대학원 영문학과 번역학 전공

hanmarian@dongguk.edu

관심분야: 문학 번역, 번역 비평, 번역 교육

논문투고일: 2010년 1월 31일

심사완료일: 2010년 3월 02일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09일